

# 신동주 “신유열, 능력 검증 안돼”… 이사선임 반대 예고

**내일 日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신동빈 이어 신유열 견제하는 듯  
신동주, 주주제안서·질의서 제출  
본인 이사선임, 신동빈 해임 안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0번째 이사회 복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신유열 전무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후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



2020년 울산시 울주군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를 시작하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 전체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자회사들에서 신동빈이 받은 과도한 임원 보수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지금은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신 전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운사의 주주로 ‘롯데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주주제안서에는 ▲본인의 이

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13년간 국내 5대 그룹 자리를 지킨 롯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 순위 6위에 머무르는 등 그룹 전체가 침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랜 세월 회장직을 지낸 신동빈 회장의 경영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신동빈 회장은 그룹사 여러 책임자에게 단기적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교체했지만,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 자신이다”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 신동빈 회장을 대체해야 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신 전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속되는 경영 악화에 대한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책임과 입장을 묻는 사전 질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내용에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

한 책임 ▲한국 롯데그룹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 등이 포함됐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신유열 전무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반대표 및 주주제안과 관련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회사대표로서 롯데의 위기 상황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의 복귀 안건 표결이 이뤄질 경우 10번째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표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주총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진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폴리카’ 사업을 강행한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hy, 신선 커피 브랜드 ‘하이브루’ 론칭

로스팅 후 10일 이내 추출 원액 사용  
카페라떼·아인슈페너 등 3종 출시

hy가 ‘신선커피’를 지향하는 신규 커피 브랜드 ‘Hybrew(하이브루)’를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브루는 로스팅 후 10일 이내 추출한 커피 원액을 사용하고 프레스 매니저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신선도를 유지한다. 신제품은 총 3종이다.

‘하이브루 오리진 콜드브루’는 인공 첨가물 없이 아라비카 원두 3종(에티오피아·콜롬비아·브라질 생산)에서 추출한 커피원액과 물만 사용해 만든다. SDP(S



uper drop Process)공법을 적용해 콜드브루 특유의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하이브루 카페라떼’는 콜드브루와 핫브루, 2가지 추출 방식을 적용한 정통 라떼다. 설탕과 합성감미료를 넣지 않은 무가당 제품으로 라떼 본연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크림 커피 ‘하이브루 아인슈페너’도 선보인다. RTD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디저트 대용으로 좋다.

패키지에는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Proof’ 로고를 사용했다. hy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의 라이선스를 자사 커피 제품에 적용해 판매 중이다.

신제품은 전국 프레스 매니저와 hy 온라인몰 프레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롯데웰푸드, 신입사원 채용 인턴전형 접수

내달 1일까지 영업지원 등 6개 직무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1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인턴 전형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업지원(제과) ▲영업관리(푸드) ▲경영관리 ▲교육 ▲법무 ▲재무 등 6개 직무다.

인턴 전형 지원서 접수 기간은 7월 1일 오후 5시까지다. 지원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2024년 8월까지 취득 완료)다.

해외 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남성은 군필, 혹은 면제자의 국가유공자여야 한다. 직무별 자격 요건은 채용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서류전형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롯데웰푸드

▲인성진단 ▲면접전형 ▲건강검진 ▲인턴실습(4주) ▲전환평가 ▲최종합격 순이며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롯데웰푸드는 1967년 롯데그룹의 모회사인 롯데제과로 설립된 이래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제품으로 국내 제과 산업을 이끌어왔다. /신원선 기자

## 현대백, 더현대 대구서 ‘기안84’ 개인전

내달 5일부터 ‘기안도 플로팅 온 대구’

현대백화점이 웹툰 작가로 유명세를 떨친 아티스트 ‘기안84’의 개인 전시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내달 5일부터 8월 4일까지 더현대 대구 9층에서 기안84의 제2회 개인전 ‘기안도(奇案島·기묘한 섬) 플로팅 온 대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인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주제로 총 30여 점의 그림을 선보인다. 대표 작품으로는 홀로 늙어가는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을 담아낸 ‘기안도’,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린 ‘빛나는 자화상’,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감을 얼음으로 재



해석한 ‘시간 시리즈’ 등이 있다. 또한, 큐빅을 활용한 작품인 ‘빛나는 반러인 시리즈’, 사랑에 대한 작가의 고찰을 나타낸 유화 ‘사랑2024’ 등 기존 전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작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내달 19일에는 작가가 직접 전시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오는 28일까지 전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 SSG닷컴 ‘6월 끝-장보기’ 행사

SSG닷컴이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6월 끝-장보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 상품을 비롯한 인기 장보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또는 N+1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인기 신선품 반값 기획전을 진행하고, 주요 가공식품과 음료는 구매 수량에 따라 증정 또는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푸, 치약 등 생필품 행사도 전개한다.

‘알뜰 장보기’를 테마로 마련한 행사인 만큼, 활용도 높은 식재료와 이를 이용한 요리도 함께 제공한다. 양배추, 두부, 당면, 차돌박이 등이 대표 상품이다. /최빛나 기자

## 하이트진로, 티엠알파운더스에 지분 투자

테이블 오더 시스템 ‘태그히어’ 운영

하이트진로는 테이블오더서비스 타트업 ‘티엠알파운더스’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엠알파운더스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 ‘태그히어(Tag here)’를 운영 중이다.

태그히어는 스마트폰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기반으로 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없이 간단한 태그만으로 편리하게 개인 모바일에서 메뉴를 직접 주문할 수 있다.

태그히어는 고가의 기기 설치 비용 및 설치공간 확보, 배터리 충전 등 테이블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기존 테이블 오더가 가진 단점을 보완했다.

그 결과 지난 해 9월 론칭해 서비스 초기 단계임에도 90만명 이상이 태그히어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티엠알파운더스는 2025년까지 7000개 매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테이블 오더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티엠알파운더스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